

카타야나기 에이이찌 교수의 논문  
“인간적 자유의 현대적 문제”에 대한 논찬

백 충현 (白忠鉉)

이번에 제8회 한일신학자학술회의를 주최하고 초청 및 환대하여 주셔서 세이카쿠인대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제1회부터 제8회까지 학술회의를 진행해오는 동안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리고 장로회신학대학교와 세이카쿠인대학 사이에 학문적, 신앙적, 신학적 교류와 교제가 확장 및 심화되고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무엇보다도,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그리스도교 인간론”이라는 주제로 양측의 탁월한 학자들이 발표함으로써 학문적으로 의미가 깊은 향연이 되리라 기대한다. 특히, 카타야나기 에이이찌 교수의 훌륭한 논문 “인간적 자유의 현대적 문제”를 읽고 논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논찬자에게는 개인적으로도 아주 큰 기쁨이다. 카타야나기 에이이찌 교수는 종교철학자로서 고대 그리스도교 사상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해오고 있기에 “그리스도교 인간론”이라는 주제를 핵심적으로 통찰력 있게 잘 제시하였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인간론에 관한 깊은 통찰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

이 논문은 문학과 철학과 신학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인간론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자유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특히, 체코의 문학가 프란츠 카프카 (Franz Kafka, 1883-1924)의 『법 앞에서』, 오스트리아의 정신병리학자 빅토르 프랑클 (Viktor E. Frankl, 1905-1997)의 『밤과 안개』와 『삶의 의미를 찾아서』, 러시아의 문호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Fyodor Dostoevsky, 1821-1881)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Immanuel Kant, 1724-1804)의 『판단력 비판』,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 (Dietrich Bonhoeffer, 1906-1945)의 『저항과 복종』, 그리고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Augustine of Hippo, 354-430)의 『삼위일체론』을 다양하게 다룸으로써 인간의 자유에 관하여 풍성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제시한다. 이러

한 논의를 통하여 이 논문은 인간이 삶의 의미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적 자유라고 주장하며, 또한 이러한 진정한 인간적 자유는 인간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을 풍성하게 및 주도면밀하게 전개하고 제시하신 카타야나기 에이이찌 교수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논문의 서론은 카프카의 『법 앞에서』에 나오는 문지기가 법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시골 남자에게 행한 말, 즉 “누구도 여기서 허락을 구하지 않지. 왜냐면 이 입구는 오직 당신에게만 있는 거니까” 라고 행한 말로써,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상상을 자극하며 논의를 촉발시킨다. 그런 후에 이 논문의 I장에서는 문지기의 말이 의미하는 바를 해명하는 하나의 힌트를 프랑클의 글들에서 찾아 이것을 사고의 전환, 즉 “삶의 의미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라고 규정한다. 이 논문에 따르면, 사고의 전환은 인간이 삶에 대해 어떤 기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삶이 인간에게 어떤 기대를 묻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고의 전환은 삶에서 인간이 자신을 질문자로서가 아니라 답변자로서 서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클의 개인적인 체험에서처럼 비록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삶의 상황에 대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한다면, 인간은 자신이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아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으며 인간적 자유를 누린다고 이 논문은 주장한다.

이 논문 II장의 시작부분에서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나오는 무신론자 이반의 사상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사상)에 대한 도미토리 효도로비치의 질문, 즉 “무신론자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악행은 허용될 뿐 아니라 가장 현명한 행위로 인정돼야 한단 말인가요?” 라는 질문을 소개함으로써, 또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상상을 자극하며 논의를 촉발시킨다. 그런 후에 이 논문에서는 칸트의 글과 본회퍼의 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제시한다. 이 논문에 따르면, 칸트는 인간이 신의 존재여부와 신의 보상징벌여부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든지 악행을 행한다면 그것은 인간 자신이 비겁하고 비굴함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본회퍼는 인간이 “신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성인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여기에서의 “신”은 본회퍼에 따르면 그릇된 신에 대한 관념, 즉 인간이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기계적인 신에 대한

관념으로서의 신을 가리킨다. 그런 후에 이 논문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술, 즉 “신을, 이 세상 혹은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그 권력을 통해 구하는 자는 ..... 신에게서 멀어지고 추방당한다.” 고 인용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인간의 깊은 내면에, “이 깊은 내면보다 더 깊은 내면에 우주, 세계의 창조주이신 신이 존재하다” 고 갈파한다. 그런 후에 논문의 결론으로서 카타야나기 에이이찌 교수는 “이 장소가 프랑클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의 장소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장소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고 주장한다.

이제 논찬자는 이 논문의 논지와 전개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들을 제기함으로써 이 논문이 의도하는 바를 더 명확히 하고자 한다.

첫째, 이 논문은 한편으로는 “삶의 의미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을 통하여 진정한 인간적 자유를 발견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릇된 관념으로서의 신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참 신과 함께 사는 것을 연결시킨다. 이러한 연결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은 시도이지만, 인간적 자유와 신의 존재를 연결시키는 것이 과연 설득력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무신론의 전제 위에서 인간적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키는 셸리 케이건 (Shelly Kagan) 교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Death)』 라는 책에서 인간의 자유 (의지) 를 인정하지만 유신론적 전제는 전혀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케이건 교수는 인간의 죽음은 개인의 소멸이며 영혼도 없고 영생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케이건 교수는 인간은 단 한 번 자신에게 주어지는 삶에 감사하며 이러한 삶을 신중하게 살아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그러기에 인간의 자유와 신의 존재를 연결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인간론을 다루는 이들이 반드시 써들어야 하는 힘든 난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설득력 있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 논문에서도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둘째, 이 논문이 생각하는 인간적 자유는 어떤 자유를 가리키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카프카의 글과 프랑클의 글들에 근거하는 이 논문은 주로 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차원의 자유를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으로 인간적 자유

의 온전한 실재를 드러낼 수 있는가를 묻고자 한다. 특히, 프랑클의 로고테라피 (logotherapy), 즉 의미치료를 통하여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으로 인간적 자유의 실재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가를 묻고자 한다. 인간의 개인적이고 실존적이고 내면적인 자유 외에도, 인간적 자유에 관한 다른 접근들이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간적 자유의 총체적인 실재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인간이 사회의 악한 체제와 제도와 구조 속에서 단지 의미를 발견함으로써가 아니라 악한 것들을 어떻게 개혁하고 변혁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면, 라인홀드 니버 (Reinhold Niebuhr) 가 1932년에 출판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A Study in Ethics and Politics)』에서처럼, 사회의 구조들에 관해서도 다루어야 인간의 자유의 온전한 실재가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셋째, 프랑클의 경우는 비록 죽음의 수용소에서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상처로부터 치료되고 인간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질문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전쟁과 독재와 억압과 차별 등등의 여러 종류의 악의 구조들 속에서 아무런 힘없이 죽어갔던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죽어가면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인간적 자유를 누리면서 죽어갔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힘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스스로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없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에 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또한, 악한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스스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되, 여전히 악한 구조 속에서 악행을 계속 저지르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넷째, 카프카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카프카 자신은 문학을 통하여 실존적으로 의미 있는 삶과 자유를 추구하였는지 모르지만, 정작 본인 자신은 무섭고 엄한 아버지로부터 오는 굉장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아버지에게 말할 엄두도 나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즉,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를) 썼지만, 끝내 아버지에게 보내지도 못하고 죽었다. 즉, 한 개인 인간 자신의 실존적인 의미를 발견하고자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관계 사이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자유까지 나아가도록 하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그렇다면 인간적 자유의 온전한 실재를 충분히 드러내기 위하여 더 좋은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섯째, 인간적 자유를 신의 존재와 연결시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신이 어떠한 신인지에 관하여 또 다른 탐구를 온전히 수행하여야 한다. 칸트에게 신은 단순히 재판관으로서의 신 또는 위정자로서의 신이 아니라, 이성의 종교와 이성의 윤리 안에서 작동되는 신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신이 성경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분회파에게 신은 인간이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전능성의 신이 아니다. 오히려 나약함과 고통 속에서 드러나는 성경의 신이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신은 단지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교 인간론을 탐구하면서 인간적 자유와 유신론을 연결시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신이 어떠한 신인지에 관하여 분명한 입장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카타야나기 에이이찌 교수에게 신은 어떤 분이신가? 아우구스티누스가 탐구하였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신과 인간적 자유를 연결시키는 것은 가능한가? 인간적 자유의 실재를 더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신의 존재를 전제한다면, 이러한 연결 작업은 더 설득력 있게 제시될 수 있는가?